

10代청소년性폭력찾아

한 달새 서울에서만 20여건 발생

288.5.10

사회기감이 해이해지고
성세대의 성품속이 문란해지
면서 최근 추고교와화생이나
젊은 여성을 상대로한 청소년
범죄의 성범죄가 빈발하고
있다.

이같은 성범죄는 강도강간
범또는 불량배뿐아니라

이들 사춘기 청소년들은 본
드 부탄가스 흡입 등으로 인
한 화학상태에서 범행을 저
지르며 남노공학의 동년여학
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결
수도 없지 않다。

경참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초에 걸쳐 발발한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나 젊은 여성이 서울에서만 20명이 넘었다.

맞아 이같은 범죄가 더욱 늘
어날 것으로 보고있다。

학교총학생 宋모군(14·서울
N중2년)등 9명에게 집단
폭행을 당했다.

중앙일보 이후 6시반경
禿山洞 남문시장에서 宋군등
을 만나 「친구집에 놀러가」

東宮千后 2등 한강고수부지
에 불러왔다 귀가하면 金
모양 17·서울H역상 2년(동
외고생)명이 숲단고(17·S
고교2교)와 고교생 2명의

는 말에 따라갔다. 宋君은
깨진 병으로 위협하는 바
라에 꿈쩍없이 변을 당했다
는것.

△같은날 밤 11시경에는 江

긴 10대를량배 8명에게 각
 목으로 위협한뒤 차례로
 폭행을 당했다.
 순간이 경찰의 불간섭이뒤
 따랐게 돌아다니고 오히려

모양(14) 등 3명만 함께 京畿道와 평안도 원자로 소풍을 갔던 가운데 학교 남학생 李모군(14·3년) 등 11명에게 서울 蘆原(下溪동) 야산에서 폭행

의로 조사를 받던 **김문균**(1933)이 피해자의 아버지 **李明**(46·상연)에게 발로 가슴을 차며 실신, 17일만에 숨지기도 했다.

을 받고 다음날 아침 풀려나
기도했다.

△고고2년생인姜모양(18)은 지난달 29일밤 10시경 서울江東구吉동218동네야산으로 산책나갔다. 金모군(18·H고2년)등 5명이 각목으로 위협하는 바람에 강제로 폭행을 당했다.

본드냄새맡고 幻覺상태서 犯行
같은학교여학생 집단暴行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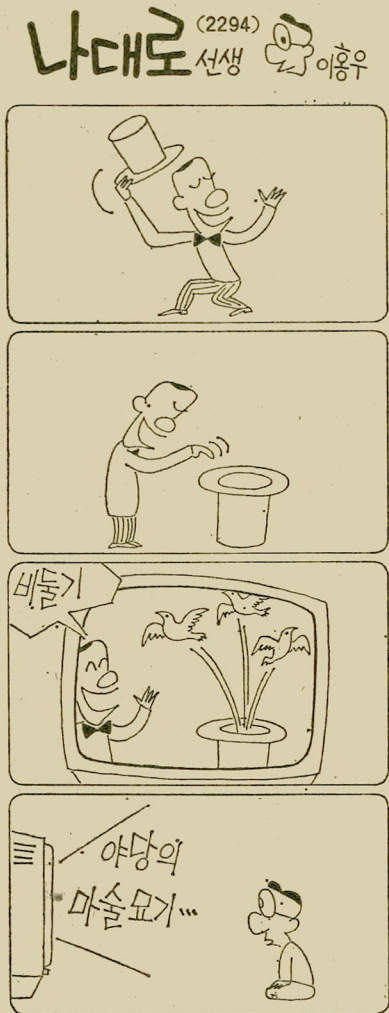
들을 좀 흔내주려고 했을뿐』
이라고 태연히 말해 주위사
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.
△지난 3일 오후 5시반경
남노면화인 서울H중3년盧

당한뒤 실신하기도 했다.

盧安은 2월이나 실신한채
京畿도九里시의 한 중옥음식
점까지 끌려가 『부모에게 알
리면 죽어버리겠다』고 협박

金古은 당시 麻浦구합井동 잔디밭에서 국공동창 5명과 함께 본드와 부탄가스를 마시고 환각상태에서 지나가던李女士의 딸(14·중2)과 친구

남치, 폭행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인사를 하러 오자, 폭행을 당했던 것.



장어의 힘과 영양

마음

 **대평양화학**

대마초작가 李外秀씨
1百萬원에 보석허가
서울형사지법 4단독 李載
哲관사는 10일 대마관리법위
반결의로 구속기소된 작가
李外秀씨고인(43)에 대해 보
석금 1백만원에 보석을 허가
시켰다.